

“아프시지요? 교회를 살리고 있습니다!”

사도신경 다함께

찬 송 397장 다함께

1. 주 사랑 안에 살면 두려움 없으며
 그 사랑 변함 없어 늘 마음 편하다
 저 폭풍 몰아쳐서 내 마음 떨려도
 주 나의 곁에 계셔 겁 낼것 없어라

2. 주 나의 목자시니 부족함 없으며
 주 인도하는대로 늘 따라가리라
 그 지혜 나를 깨쳐 내 앞길 밝히니
 나 주의 길을 따라 주 함께 살리라

3. 저 넓고 푸른 들판 내 앞에 열리고
 그 검은 구름 걷혀 새 하늘 보인다
 끝 없는 나의 소망 저 환한 생명 길
 참 보배 되신 주님 늘 함께 하소서 아멘

기 도 맡은이

성경봉독 빌립보서 2:5~8 다함께

⁵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
 이니 ⁶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⁷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⁸사람의 모
 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
 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I 삶 나누기

한 주간의 삶과 Q.T, 특별한 감사의 제목이 있다면 간단히 나눕니다.

“아프시지요? 교회를 살리고 있습니다!”

2026. 1. 7. 신년비전새벽기도회 설교

내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기독교 신앙에서 내가 어떤 상황에서 어떻게 행동할 것인가는, 내가 어떤 하나님을 믿고 있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내 안에 가진 하나님 상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나에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전지전능하시고, 능력이 많으시고, 무소부재하신 하나님이십니까? 물론 맞는 말입니다. 그러나 거기에만 머물러 있다면, 나는 아직 기독교의 하나님을 온전히 알고 있다고 말하기 어렵습니다. 기독교의 하나님은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시고 십자가에 달리신 하나님이십니다. 내 하나님은 “십자가에 달리신 하나님” 이십니다.

※ 내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에 따라, 내가 선택하는 삶의 방식도 달라집니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라는 말씀의 뜻

빌립보서 2장 5-11절의 그리스도 찬가는 초대교회 성도들이 불렀던 노래였습니다. 그들은 이 찬가를 부르며 자신들이 믿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마음에 새기고 세상에 전했습니다. 바울은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5절)라고 하며, 예수님이 어떤 마음으로 이 땅에 오셔서 자신을 내어주셨는지를 보여 줍니다. 예수님은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6-7절) 이 땅에 오셨습니다. 여기서 “자기를 비워” 라는 말은 신성을 버리셨다는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이기를 포기하셨다는 뜻도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으로서 누릴 수 있는 권리와 특권을 붙들지 않으셨다는 뜻입니다.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시면서도 그 권리를 주장하지 않으시고 종의 삶을 선택하셨습니다.

※ 예수님의 낮아지심은 하나님의 존귀하심을 버리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내신 사건입니다.

초대교회는 왜 이 하나님을 붙들었는가?

초대교회 당시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신은 언제나 높은 자리에 머무는 존재였습니다. 그런데 기독교는 전혀 다른 하나님을 전했습니다. 하나님이 스스로 자기를 비워 종의 자리를 택하시고, 사람들을 섬기시며, 끝내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세상이 쉽게 받아들일 수 없는 이야기였습니다. 그러나 초대교회 성도들은 이 복음의 뜻을 알았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높은 곳에만 계신 분이 아니라,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 직접 낮은 자리로 내려오신 분이라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교회를 위해 핍박을 받고, 억울함을 겪고, 손해를 감수하고, 때로는 침묵하며 견디는 일을 부끄러워하지 않았습니다. 세상 눈에는 초라하고 비천해 보일지라도, 교회를 위한 그런 선택이야말로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신 하나님의 삶에 참여하는 길이라고 믿었습니다.

※ 초대교회 성도들은 낮아지신 하나님을 알았기에, 교회를 위한 고난과 섬김을 부끄러움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삶에 참여하는 길로 여겼습니다.

교회를 위한 낮아짐과 십자가의 의미

우리 마음은 낮아지기보다 높아지기를 원합니다. 초라해 보이기보다 화려해 보이고 싶어합니다. 억울한 일을 당하면 해명하고 싶고, 손가락질을 받으면 견디기 어렵습니다. 그것이 내 인격과 체면의 문제처럼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때로는 교회를 위해, 교회의 화평과 하나됨을 위해, 내 옳음을 끝까지 주장하지 않는 것이 더 바른 선택일 때가 있습니다. 교회를 지키기 위해 내가 조금 작아져야 할 때가 있고, 공동체를 살리기 위해 내 자존심을 내려놓아야 할 때가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것이 억지로 떠밀려 하는 선택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자발적으로 선택하는 길이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세상은 십자가를 가장 천하고 수치스러운 자리로 여깁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스스로 그 자리로 가셨습니다. 세상을 구원하시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므로 십자가는 하나님의 존재방식의 포기가 아닙니다. 오히려 바로 그 십자가 자리에서 하나님의 존귀하심이 가장 선명하게 드러났습니다. 바로 그 자리에서 하나님 자녀의 존귀함이 드러납니다.

※ 교회를 위한 낮아짐은 인격의 훼손이 아니라, 하나님 자녀의 존귀함을 드러내는 믿음의 결단입니다.

결론: 하나님은 낮아진 자를 높이신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신 후 하나님께서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신 것처럼, 하나님은 오늘도 하나님을 위해, 교회를 위해 참고 인내하는 자를 결국 높이십니다. 지금은 억울하고 손해 보는 것처럼 보여도, 하나님은 그 순종과 인내를 결코 잊지 않으십니다.

아프시지요? 억울하십니까? 그러나 교회를 위해 내 권리를 내려놓고 화평과 하나됨을 선택하는 그 자리가 바로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는 자리입니다. 그리고 바로 그 자리에서, 우리는 교회를 살리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교회를 위해 자기를 낮추는 자를 끝내 외면하지 않으시고, 반드시 당신의 때에 높이십니다.

말씀 나눔

- ①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등됨을 붙들지 않으시고, 자신을 어떻게 하시며 어떤 삶을 선택하셨습니까? (힌트: 자기를 00, 0의 형체를 가져)
- ② 초대교회 성도들은 왜 교회를 위해 낮아지고 인내하는 일을 부끄러워하지 않았을까요? 그 모습이 오늘 우리의 공동체 생활에 주는 교훈은 무엇인지 나누어 봅시다.
- ③ 나는 교회 안에서 억울하거나 자존심이 상하는 일을 만날 때 보통 어떻게 반응합니까? 공동체의 화평과 하나됨을 위해 내가 내려놓아야 할 말이나 태도, 혹은 붙들어야 할 그리스도의 마음이 있다면 나누어 봅시다.
- ④ 오늘 공과를 통해 받은 은혜나 위로, 도전이 있다면 나눠주세요.
특별히 이번 한 달 동안 교회의 화평과 하나됨을 위해 삶 속에서 연습해 보고자 하는 ‘한 가지 실천’ 을 나누고, 함께 기도하며 마무리합니다.